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고
요
와
격
정
사
이

From Serenity to Passion

KBS교향악단 제796회 정기연주회

지휘 | 마리오 벤자고 Mario Venzago
바이올린 | 미도리 Midori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후원  더클래스효성

2023.11.25. (SAT) 20:00
롯데콘서트홀

2023.11.26. (SUN) 16:0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ETIQUETTE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 1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2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3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4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5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From Serenity to Passion

고요와 걱정 사이 | PROGRAM

슈베르트 | 피에라브라스 서곡, D.796
F. Schubert | Fierabras Overture, D.796

🕒 9'

버르토크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Sz.112
B. Bartók | Violin Concerto No.2, Sz.112

🕒 36'

1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16')
Allegro non troppo

2악장 주제 및 변주곡: 느리고 고요하게(9')
Theme and Variations: Andante tranquillo

3악장 론도: 매우 빠르게 (11')
Rondo: Allegro molt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슈만 | 교향곡 제2번 C장조, 작품61
R. Schumann | Symphony No.2 in C Major, Op.61

🕒 38'

1악장 매우 지속적으로 -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13')
Sostenuto assai - Allegro ma non troppo

2악장 스케르초: 빠르고 생기 있게 (8')
Scherzo: Allegro vivace

3악장 느리고 표현이 풍부하게 (9')
Adagio espressivo

4악장 빠르고 매우 생기있게 (8')
Allegro molto vivace

MARIO VENZAGO, CONDUCTOR

지휘 | 마리오 벤자고

"당신의 음악은 널리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 Claude Baker

스위스 출신의 거장 지휘자 마리오 벤자고는 2021년 여름까지 11년간 베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이자 예술감독으로 재임하였다. 그 이전에는 인디애나폴리스 교향악단, 예테보리 교향악단, 산 세바스티안의 바스크 국립 오케스트라, 바젤 교향악단, 그라츠 오페라와 그라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하이델베르크 극장 및 하이델베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무직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 또는 음악감독직을 역임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로열 노던 심포니아,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핀란드 차피올라 심포니에타 연계 아티스트(Artist in Association)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핀커스 주커만과 데이비드 진먼의 뒤를 이어 볼티모어 여름 축제의 예술감독으로 활약하였다.

마리오 벤자고는 베를린 필하모닉,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보스턴 교향악단,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라 스칼라 필하모닉, NHK 교향악단 등을 지휘하였고, 그 밖에도 정기적으로 볼티모어 교향악단,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테보리 교향악단,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로부터 초청받아 지휘하고 있다.

또한 그는 Novalis, BIS, CPO 등 다양한 음반사에서 음반을 녹음했으며, 다수의 음반으로 Grand Prix du Disque, 디아파종 도르, 에디슨 어워드 등 세계적인 상을 휩쓸었다. 이외에도 오페라 <Venus>, <Penthesilea> 음반을 비롯하여 MDR 합창단 및 교향악단과 함께 한 오토마르 쇠크의 합창곡 음반은 국제적인 인정과 함께 저명한 상을 수상했다. 개별 교향곡 음반으로는 전 세계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던 10개의 브루크너 교향곡 전곡이 수록된 <The Other Bruckner> 프로젝트가 CPO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으며, 2022년에는 Prospero 레이블에서 베른 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 슈베르트 교향곡 제7번 음반을, 2023년 6월에는 Chandos Records에서 싱가포르 교향악단과 함께한 버나드 허먼의 오페라 <폭풍의 언덕> 모음곡 음반이 발매되었다.

©Alberto Venzago





MIDORI, VIOLINIST

바이올린 | 미도리

전 세계에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미도리는 우아하면서도 정확한 소리와 심오한 표현력을 지니고 있다. 11세에 주빈 메타에게 발탁되어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 무대를 가진 것을 계기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한 그녀는 런던,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을 비롯하여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베를린 및 빈 필하모닉, 말러 체임버 오케스트라, 루체른 페스티벌 현악 합주단 등 무수히 많은 단체와 협연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 에마누엘 악스, 레너드 번스타인, 콘스탄티노스 카리디스,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다니엘 하딩, 파보 예르비, 마리스 안손스, 요요마, 수잔나 말키, 요아나 말비츠, 안토넬로 마나코르다, 주빈 메타, 타르모 펠토코스키, 도널드 루니클스, 오메르 메이어 웰버 등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도 호흡을 맞추고 있다.

현재까지 2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한 가운데, 크리스토프 에센바흐의 지휘로 NDR 교향악단과 협연한 힌데미트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은 그 래미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5년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타 앨범을 발매하였고,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2022/23 시즌에는 장 이브 티보데와 함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한 기념비적 음반을 발매했다.

미도리는 인도주의적, 교육적 사명을 바탕으로 다수의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였다. 1992년, 21세였던 그녀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 경험과 연주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Midori & Friends'를 설립하여 뉴욕에 위치한 학교와 조직에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또, 그녀가 세운 실내악 단체 'MUSIC SHARING'은 아시아 지역의 학교와 병원 등지에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유엔 평화 대사로서 국제 오케스트라 레지던시 프로그램(ORP)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국립 음악 연구소의 젊은 아프간 음악가들에게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렇듯 예술과 문화 교류 분야에 세운 공을 인정받아 2001년 에이버리 피셔 상, 2020년 미국 케네디 센터 공로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뉴욕 대학교 심리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보유한 미도리는 2005년부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18년 커티스 음악원의 교수진에 합류했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원의 특별 초빙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라비니아 페스티벌 스티븐스 뮤직 인스티튜트의 피아노 & 스트링 프로그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미도리는 1734년산 과르네리 델 제수 'ex-Huberman' 악기를 연주하며, 도미니크 페카트, 프랑수아 페카트, 파울 지그프리트가 제작한 네 개의 활을 사용하고 있다.

슈베르트 | 피에라브라스 서곡, D.796

F. Schubert | Fierabras Overture, D.796

| | |
|------|---|
| 작곡연도 | 1823년 |
| 초연 | 1835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 |
| 편성 |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스네어드럼, 현5부 |
| 연주시간 | 약 9분 |

1822년, 오스트리아 빈의 케른트너토어 극장은 카를 마리아 폰 베버와 프란츠 슈베르트에게 독일어 오페라 작곡을 의뢰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베버의 <오이리안테(Euryanthe)>와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Fierabras)>이다. 그런데 당시 빈의 오페라 관객은 러시아의 오페라에 열광하고 있었기에 베버의 <오이리안테>가 1823년 10월 25일에 케른트너토어 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이 작품은 단 20일간 상연되고 막을 내렸다. 베버의 독일어 오페라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는 상연이 보류되었고, 슈베르트는 작곡료조차 받지 못했다. <피에라브라스>는 슈베르트 사후 7년이 지난 1835년 5월 7일에 빈 요제프슈타트 극장에서 연주회용 버전으로 상연된 이후 1897년에 이르러서야 펠릭스 모틀의 지휘로 독일의 카를스루에 극장에서 전막 초연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페라 <피에라브라스>의 내용은 무어의 기사 피에라브라스를 둘러싼 사랑 이야기이다. 피에라브라스의 여동생이 샤를마뉴 대제의 기사와 맺어지고 피에라브라스가 사랑했던 엠마는 결국 다른 기사와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인데, 정작 주인공 피에라브라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 오페라의 제목을 ‘피에라브라스’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해 왔다.

서곡을 여는 현악의 트레몰로*는 슈베르트 후기 실내악곡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연주법으로,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곡의 도입부는 ‘느리게(Andante)’의 다소 여유 있는 템포로, ‘매우 여러게(pp)’ 시작하지만 제3마디 때부터 급격히 커진 후 제6마디 때에 ‘매우 강하게(ff)’의 큰 음량으로 나폴리 6화음(나폴리 악파에서 사용하던 변화화음)이 등장해 예기치 못한 충격을 준다. 이윽고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Allegro ma non troppo)’로 템포가 조금 빠르게 바뀌면 f단조의 선율이 들려오는데, 반음계적인 그 선율은 어딘지 모를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로 긍정적인 느낌의 F장조의 선율이 연주되지만 종종 f단조의 어두운 선율과 불안한 분위기를 풍기는 현악의 트레몰로가 끼어든다. 단조와 장조의 대비, 반음과 온음의 대비, 트레몰로와 긴 음의 대비가 주는 극적인 효과 덕분에 서곡만으로도 오페라의 극적인 긴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트레몰로(tremolo): 현악기의 활을 아래위로 빠르게 움직여 떨리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주법

버르토크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Sz.112

B. Bartók | Violin Concerto No.2, Sz.112

| | |
|------|--|
| 작곡연도 | 1937-1938년 |
| 초연 | 1939년 3월 2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 편성 | 플루트2(제2주자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2(제2주자는 잉글리시 호른 겸함), 클라리넷2(제2주자는 베이스클라리넷 겸함), 바순2(제2주자는 콘트라바순 겸함),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스네어드럼, 베이스드럼, 심벌즈, 서스펜디드 심벌, 트라이앵글, 탐탐(공), 첼레스타, 하프, 현5부 |
| 연주시간 | 약 36분 |

이른바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 불리는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20세기 바이올린 협주곡을 꼽는다면,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과 더불어 오늘 연주되는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을 빼놓을 수 없다. 버르토크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은 오늘날 국제 콩쿠르 결선에서 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바이올리니스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독주 파트의 기교는 전례 없이 까다롭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결코 쉬운 곡은 아니지만, 독주자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던 협주곡에서 탈피해 독주와 오케스트라 간의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이 곡은 이상적인 협주곡의 모범을 보여준다.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은 헝가리의 바이올리니스트 졸탄 세케이의 요청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세케이는 버르토크보다 22년 연하의 젊은 음악가지만 두 사람은 세대 차를 뛰어넘는 우정을 오래도록 이어갔다. 1925년경 세케이를 알게 된 버르토크는 세케이의 놀라운 재능과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아 종종 리사이틀 무대에서 함께 연주하곤 했다. 세케이는 버르토크에게 콘서트에서 연주할 바이올린 협주곡의 작곡을 의뢰했고, 1938년에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전곡이 완성되었다. 1939년 3월 세케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지휘자 빌렘 멩겔베르크와 함께 이 협주곡을 초연했다.

애초에 버르토크는 변주곡 형식으로 된 단악장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세케이가 원하는 것은 전통적인 3악장 구성의 바이올린 협주곡이었으므로 작곡가는 고민에 빠졌다. 결국 버르토크는 서로가 만족할만한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세케이가 원하는 대로 3악장 구성의 협주곡을 작곡하되, 자신이 원하던 변주 형식을 절묘하게 사용한 것이다. 2악장은 완전한 변주곡으로 작곡하고, 3악장을 1악장의 주제에 대한 일종의 변주처럼 작곡했으므로 단악장의 곡처럼 통일성이 느껴진다.

1악장 Allegro non troppo(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는 하프와 현악기의 피치카토* 주법을 바탕으로 한 6마디의 서주에 이어 인상적인 바이올린 솔로로 시작한다. 이 주제를 잘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3악장 도입부 주제와 비교해보면, 3악장의 선율이 1악장 주제에 의한 일종의 변주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1악장의 제73마디에 ‘침착하게(Calmo)’라는 표현 지시어와 함께 제2주제가 나타나는데, 이 선율은 한 옥타브를 이루는 12반음이 모두 사용되고 있어 쇤베르크의 12음 음렬음악을 연상시킨다. 그리고 독주자 홀로 연주하는 카덴차 직전에는 거칠고 광포한 음악이 흐르고 ‘매우 매우 매우 강하게(ffff)’라는 극단적인 강악 지시어가 나온 후 서양음악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4분음**이 미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려한 카덴차를 지나 후주 부분에서 음악이 빠르고 거칠게 변모하면 오케스트라의 현악기 주자들이 지판을 때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손가락으로 줄을 강하게 튕겨 연주하는 ‘버르토크 피치카토’를 구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지만 다시 원래 템포로 되돌아와 1악장이 마무리된다.

*피치카토(pizzicato): 손가락으로 현을 튕겨 연주하는 주법 / **4분음(quarter-tones): 반음을 다시 반으로 나눈 미분음

2악장 Andante tranquillo(느리고 고요하게)는 변주 형식의 곡이다. 전반적으로 맑고 반짝이는 느낌의 하프와 첼레스타의 음향이 돋보이며 팀파니의 섬세한 연주가 바이올린과 조화를 이룬다. 서정적인 주제에 이어 6개의 변주가 이어지는 동안, 바이올리니스트는 마치 무대에 선 주인공이 청중을 향해 내뿜는 독백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표정을 바꾸고 종결부로 마무리된다.

3악장 Allegro molto(매우 빠르게)는 춤곡 풍의 서주에 이어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제를 연주하며 시작하는데, 이때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선율은 1악장의 제1주제에 의한 변주다. 또한 12반음이 모두 사용된 제2주제 역시 1악장 제2주제에 의한 변주에 해당하며, 3악장에서 이루어지는 변주는 때때로 1악장의 코믹 버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스네어드럼 아래쪽에 장착된 ‘향현(snares)’이 울리지 않도록 한 상태로 치는 북소리와 목관악기의 장식음형이 이 곡의 해학적인 면을 잘 드러낸다. 버르토크가 이 곡을 갓 완성했을 때 세케이는 3악장에서 좀 더 화려한 종결부를 요구했는데, 작곡가는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종결부를 썼다. 그래서 이 협주곡에는 두 가지 버전의 종결부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세케이의 요구로 수정된 화려한 버전이 주로 연주된다.

슈만 | 교향곡 제2번 C장조, 작품61

R. Schumann | Symphony No.2 in C Major, Op.61

작곡연도 | 1845-1846년

초 연 | 1846년 11월 5일, 독일 라이프치히

편 성 |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트롬본3, 팀파니, 현5부

연주시간 | 약 38분

1827년에 베토벤이 세상을 떠난 후, 유럽의 거의 모든 작곡가들은 베토벤의 환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유럽의 여러 음악회 무대에서선 여전히 베토벤 교향곡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이따금 하이든의 오라토리오나 모차르트의 교향곡이 연주되었다. 간혹 멘델스존과 베버의 서곡이 프로그램에 끼여들기는 했으나 그 역시 아주 가끔 있는 일이었다. 관현악 분야에서 오로지 베토벤의 ‘불멸의 아홉 곡’이야말로 교향곡의 모범이자 절대 진리였다. 음악평론가이기도 했던 슈만은 베토벤 교향곡 이후 퇴보하고 있는 당대 교향곡에 대해 신랄한 비평을 쏟아냈다.

“최근의 교향곡들은 첫 악장에서부터 옛 서곡 스타일로 퇴보하고, 느린 악장은 관습적으로 있을 뿐이며, 스케르초는 이름뿐인 스케르초이고, 피날레는 앞 악장들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슈만은 베토벤 교향곡 이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유럽 음악계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울해했지만, 이는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다. 그는 신랄하고 화려한 문체로 당대 교향곡들의 약점을 파헤치기는 했으나 정작 그 자신도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향곡 작곡을 미루고 있었다. 베토벤 교향곡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슈만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랜 고심 끝에 1841년에 교향곡 제1번 ‘봄’을 발표한 이후 세 개의 교향곡을 더 발표했다. 슈만이 남긴 네 개의 교향곡들은 베토벤의 영향뿐 아니라 19세기 교향곡의 여러 양식들을 종합해낸 독특한 형식으로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다.

오늘 공연에서 연주되는 슈만 교향곡 제2번은 특히 베토벤의 영향이 두드러진 작품이다. 슈만의 교향곡 가운데서도 연주 시간이 가장 길고 베토벤 풍의 승리의 결말에 도달하고 있기에 베토벤 교향곡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 곡은 또 다른 면도 있다. 이 교향곡은 ‘슈만의 그레이트 교향곡’이라 불러도 좋을 듯 하다. 슈만이 그토록 감탄했던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과 똑같은 C장조인데다 슈베르트 <그레이트 교향곡>에 자주 나오는 부점* 리듬을 주요 아이디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슈만 교향곡 제2번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1악장 도입부의 트럼펫 팡파르 주제가 느린 악장을 제외한 모든 악장에 마치 ‘고정악상(ideé fixe)’처럼 등장하여 전곡을 통일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슈만 교향곡 제2번은 베토벤과 슈베르트, 베를리오즈에 이르는 19세기 교향곡들의 특징들을 모두 종합해낸 특별한 교향곡이라 하겠다.

*부점(附點): 음표나 쉼표의 오른쪽에 찍어서 원래 길이의 반만큼의 길이를 더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점

교향곡 제2번을 작곡할 당시 슈만은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울리는 북소리와 트럼펫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1845년 9월에 슈만은 그의 친구 멘델스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 안에서 커다란 북소리와 C장조 트럼펫 소리가 며칠 동안이나 들린다네. 나는 이것이 뭐가 될지 모르겠어.”

결국 그가 머릿속에서 들은 북소리와 C장조의 트럼펫 소리는 교향곡 제2번의 주요 아이디어가 되었고, 그해 10월에 교향곡 전곡의 악보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특별한 교향곡의 작곡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슈만이 교향곡 제2번을 작곡하기 한 해 전인 1844년에 그는 심한 우울증으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슈만의 주치의는 드레스덴의 기후가 슈만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조언했고, 슈만은 그 말에 따라 그해 12월에 가족을 이끌고 드레스덴의 소박한 단층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한동안 그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고 슈만은 지독한 우울증과 불면증, 청각 이상 등에 시달렸다. 다행히 해가 바뀌자 슈만의 상태는 호전되어 새로운 교향곡 작곡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슈만의 제자 바실레프스키에 따르면 슈만이 교향곡 제2번을 처음 스케치할 당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매우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두 번째 교향곡을 스케치했다네. 나는 이것을 내 마음과의 투쟁이라 부르고 싶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 그리고 그것으로 내 질병을 물리치려 한다네. 1악장은 이런 투쟁으로 가득해, 그리고 매우 짜증나고 비뚤어진 성격으로 가득하지.”

심한 고통 속에서 1악장의 주제를 떠올린 슈만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스케치를 써 내려갔다. 그는 1845년 1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단 16일만에 전 악장의 기본 골격을 완성해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인해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은 다소 늦어졌고, 이듬해 10월이 되어서야 모든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렇게 슈만의 교향곡 제2번은 1846년 11월 5일, 멘델스존의 지휘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에서 초연되었다.

1악장 *Sostenuto assai*(매우 지속적으로)의 서주 부분은 슈만의 머릿속을 울리던 C장조의 트럼펫 팡파르로 시작한다. 팡파르에 이어 신비로운 분위기의 서주의 음악이 펼쳐지고 점차 활기를 띄며 *Allegro, ma non troppo*(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의 주부로 이어지고 슈베르트의 <그레이트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부점 리듬의 주제가 긴박한 느낌을 전해준다. 1악장 말미에는 다시금 서주의 트럼펫 팡파르 주제가 재등장하고 투쟁을 통한 승리의 결말에 도달하듯 마무리된다.

2악장 Allegro vivace(빠르고 생기 있게)는 스케르초 악장이다. 이 곡은 특히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주자들의 뛰어난 개인기가 요구된다. 스케르초의 도입부에서부터 제1바이올린 주자들은 처음부터 쉴 새 없이 빠른 16분음표들을 소화해내며 긴박감을 자아내고 중간 트리오 부분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다. 슈만은 교향곡 제1번의 스케르초 악장과 마찬가지로 교향곡 제2번의 스케르초 악장에서도 2개의 트리오를 삽입하여 악곡을 구성했다.

3악장 Adagio espressivo(느리고 표현이 풍부하게)는 슈만의 느린 악장 가운데서도 매우 아름답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처음에는 현악이 선율을 이끌어가지만, 곧 오보에가 주제를 받아 노래하듯 연주를 이어간다.

4악장 Allegro molto vivace(빠르고 매우 생기 있게)는 특이한 구조를 띠고 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처럼 제1주제와 제2주제로 구성되지만, 갑자기 전체 오케스트라가 한 마디 동안 연주를 멈춘 다음, 280마디 째에 이르러 클라리넷 주자가 완전히 새로운 선율을 연주하며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그 선율은 베토벤의 연가곡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 제6곡 '사랑하는 이여, 당신을 위한 이 노래를 받아주소'에서 온 것이다. 슈만은 4악장에서 그의 연인이자 아내인 클라라를 떠올린 것일까? 아무튼 4악장 후반부에는 새롭게 등장한 연인의 주제가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반면 애초에 제시되었던 제1주제나 제2주제는 재현되지 않는다. 다만 서주의 요소와 연인의 주제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1악장 도입부에서 들려왔던 팡파르 주제가 잠시 끼어들 뿐이다. 과연 슈만은 무슨 의도로 4악장 말미에 베토벤의 선율을 인용하고 강조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연인의 주제가 강조되고 승리의 분위기로 나아가는 4악장 후반부에서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작곡가의 목소리가 느껴진다.

글 | 최은규(음악 칼럼니스트)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지휘자 마리오 벤자고가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YouTube

방황하는 이들에게

TO THOSE WHO WANDER

PROGRAM

슈트라우스 방랑자의 폭풍의 노래, 작품 14
R. Strauss Wanderers Sturmlied, Op. 14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L. v. Beethoven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ARTISTS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소프라노 홍혜승 Mariana Hong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Jungmi Kim
테너 박승주 Mario Bahg
베이스 최기훈 Kidon Choi
합창 서울모테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인천시립합창단

2023.12.20.(Wed) 20:00 롯데콘서트홀
2023.12.23.(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악장 * 부악장 ** 수석 + 부수석 ++**

제1바이올린

최병호 **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혜 황선민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광민재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트럼펫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이윤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David Coucheron*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오보에

오민정**

호른

Mischa Greull*

트롬본

Bart Claessens*

KBSSO-KARTS

Interns

제1바이올린

노서균 박가은

제2바이올린

김유진

비올라

김혜민 황주은

첼로

심수연 유세빈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주임 김민중 사원 손명조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민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대리 이미라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인턴 김문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사원 정태양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